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77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이창래의 『원어민』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남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전 세 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창래의 『원어민』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남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Korean American Identity i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Focusing on Male Characters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전 세 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창래의 『원어민』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남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전 세 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세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차희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금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정화	인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 론·····3

Ⅱ. 모범적 소수인종으로서의 아버지·····6

Ⅲ. 존 강과 미국 다문화주의의 한계·····14

Ⅳ. 원어민으로서의 헨리·····21

Ⅴ. 결론·····41

인용문헌·····4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Korean American Identity i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Focusing on Male Characters

Seeun Jeon
Advisor: Prof. Jung-Hwa Lee,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Korean American male characters in Chang-rae Lee's debut novel *Native Speaker*, focusing on their complex identities in the white-dominated American society. The Korean American novelist Chang-rae Lee published *Native Speaker* based on his identity confusion from his own immigrant experience. In *Native Speaker,* there are Henry Park who is the main character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Henry's father who is a first generation immigrant, and John Kwang who is a successful Korean American politician. I first examine the ways in which Henry's father uncritically subscribes to the 'model minority' myth and ultimately fails to provide his son with a positive model of a Korean American man. And then, the thesis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e political downfall of John Kwang and argues that Kwang's downfall speaks to the limit of American multiculturalism. Lastly, I discuss how Henry comes to re-conceive his identity and redefine the concept of 'native speaker.' Through the three Korean American male characters, *Native Speaker* criticizes racial and cultural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xclusivity, offering us the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live as a hybri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전 지구적 이동과 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계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로 다양한 민족의 이주와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소수민족들과 혼종적 존재들이 한국적 정체성과 그들 모국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혼종적 존재의 증가와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생각해보는 한 방편으로, 다문화 사회로 알려진 미국을 배경으로 이민자의 삶을 다룬 이창래(Chang-rae Lee)의 『원어민』(*Native Speaker*)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를 경험한 미국에서의 혼종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특히 『원어민』의 중요 남성인물들인 헨리 박(Henry Park)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존 강(John Kwang)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원어민』은 이창래의 처녀작으로서 작가가 어릴 적 직접 겪었던 이산의 경험을 토대로 주인공 헨리의 삶을 그려냈다. 이창래는 그 자신이 겪은 이민자 가정이라는 환경과 그 안에서 경험한 많은 부분들을 소설장치로 헨리에게 전이시켰다.

> 미국 땅에 첫발을 디딜 때부터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구나' 하고 절감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지요. 그 충격이 지금까지 제 삶을 만들어온 힘이 된 셈입니다. 이번 작품 만해도 미국사회에 사는 '다른 사람'으로서 주인공의 정체성을 묻는 소설이니까요. '미국인과는 다르다'는 사실로 괴로워하는 그에게 어머니는 늘 "다르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한만수 12)

이창래는 이 인터뷰에서 미국 사람들과 자신의 차이를 인식했고 이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으며 차이에 대한 인정이 스스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에 이르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헨리도 백인과의 차이를 인식하며 미국 사회 내에서의 그의 존재방식과 위치에 대해 깊은 물음을 던지게 된다.

헨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 김도원에 의하면, 정체성의 형성에는 그 개인이 속한 환경, 집단, 사회, 문화, 역사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피부색은 역사적으로 개인에게 아내 혹은 노예와 같은 정체성을 규정했으며 이런 정체성을 지닌 집단은 끊임없이 타자화되어 왔다"(5). 헨리는 그의 동양적인 외모 때문에 주류에게 이질적인 타자로 비춰졌으며 그들의 편협한 시각이 헨리의 정체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선영은 주류 사회로 동화하고 싶은 헨리의 욕구와 그를 타자화시키며 그의 동화를 막는 미국 사회 분위기 때문에 헨리가 이중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김선영은 주류가 헨리를 타자화시키는 원인으로 그들에게 잠재되어 처리되지 못한 백인우월주의를 꼽았다(35). 미국 정부는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백인과 소수민족들을 융합하기 위해 다문화를 포용하는 정책을 고수하지만 주류들에게는 아직도 유색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와 백인우월주의 같은 사고가 잠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소수민족 출신이 미국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자리잡는 것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민족 간의 균열을 초래한다.

이재환은 헨리를 "완전한 소속감을 형성하지 못한 구성원"으로 평가했다. 그는 헨리가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독단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가정 안에서 온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헨리가 사회에서 소속감이 희박한 스파이 직업을 가진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하였다. 그는 헨리가 아버지로 인해 억눌린 성장기를 보냈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의 불완전한 위치로 이어졌다고 본다(10). 헨리의 소속감 결핍이 어떤 곳에 소속될 필요가 없는 스파이라는 직업의 특성과 맞아 떨어진다는 관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소속되고자 하는 헨리의 욕구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박선주에 의하면, 헨리의 고민은 그가 가진 "이질적인 문화적 면모들이 번역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박선주는 번역자로서 문화적 배경이 각기 다른 두 언어를 옮겨내는 과정 가운데 달리 비슷하게 표현해 낼 말이 없이 번역이 실패한 상황을 헨리가 미국 사회에 처해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한다(525). 헨리의 한국적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번역 불가능한 것이고, 그의 혼란과 갈등은 이와 같은 문화적 번역 불가능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원어민』에는 헨리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존 강도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헨리의 아버지는 이민 1세대로서 영어능력의 한계로 주류 사회와 별다른 사회적 교류 없이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진한다. 아들 헨리의 눈에 비친 그의 아버지는 그가 미국에 이민을 왔음에도 한국적인 정체성을 고수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선주는 아버지가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다 더욱 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다(105). 실제로 아버지는 미숙한 영어로 인해 사회적인 교류를 갖지 못했고 가게 일 외에는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삶을 산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항상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다. 가게 일에 대해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거의 모든 가정의 일도 홀로 결정한다. 이선주의 말대로,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미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성을 가정에서 보상받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버지는 거의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해낸 인물로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돈이었다. 류보선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자본주의의 “충직한 노예 혹은 대리인”이라고 표현한다(138). 아버지는 사회적 단절로 인해 물질에 지나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를 축적함으로써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김도원에 의하면, 작품 속 한국계 미국인들은 궁지에 몰린 상황일 때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들의 침묵은 이민자의 소심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21).

존 강은 아버지와 같은 이민 1세대이지만 능숙한 영어실력을 가졌으며 그와 같은 소수민족들의 권리를 위해 애쓰는 정치인이다. 이선주의 말대로, 존 강은 “공적 영역의 터전을 개척한 뉴욕시의원”이다(100). 그는 가정에서만 머물던 헨리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소수민족 공동체를 넘어 미국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이상으로 『원어민』의 세 한국계 미국 남성에 관한 개략적인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II장에서는 헨리의 정체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의 아버지에 관해 다뤄본다. 그는 한국에서보다 더 낮은 계층으로 전락한 이민 1세대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모범적 소수인종’(model minority) 신화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인물이다. 서술자인 헨리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을 재구성함으로써, 모범적 소수인종으로서의 아버지의 면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촉망받는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인 존 강의 부상과 몰락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를 표방하는 미국사회의 이면에 있는 소수민족을 향한 냉소적인 시선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다.

IV장에서는 원어민으로서의 헨리의 모습을 살펴본다. 우선, 그의 아내인 릴리아(Lelia)가 그에게 건낸 메모에 담긴 단어들의 의미와 그의 동화욕구에 관해 고찰해 본다. 그리고 릴리아의 언어 교정수업 도우미 역할을 하는 헨리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원어민’을 보다 확장된 의미로 다시 정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모범적 소수인종으로서의 아버지

헨리의 아버지는 아시아계 미국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이민 1세대' 또는 '모범적 소수인종'의 삶의 사는 인물로 묘사된다. 아시아계 미국소설에서 그려지는 이민 1세대들의 전형적인 삶의 양태는 모국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민 1세대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모국에서 가졌던 지위보다 낮은 위치에 머물러 살 수 밖에 없는 형태로 고착되어 나타난다. 그들이 모국에서 축적해놓은 삶의 경험, 지식, 명예, 권력 등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건너오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러한 지위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언어 구사력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계 미국소설에는 이민 1세대들이 당장 미국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영어의 사용빈도가 비교적 낮고 미국인들과 별다른 소통과 교류 없이 가능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헨리의 아버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그가 언어적인 결함을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그 역시 아시아계 미국소설에 등장하는 이민 1세대의 삶의 전형을 벗어날 수 없다. 아버지의 생각에 신입 이민자에게는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백인들이 중심이 되는 주류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교전 규칙"(47)들이 미국 사회의 곳곳에 거미줄처럼 형성되어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1] 그는 이민 1세들이 미국 땅을 딛자마자 이런 고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 누구나 이 거친 삶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겨낸 자만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겼다. 대부분의 이민 1세대들은 싼 임금을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야만 했고 그들의 매일의 삶이 전쟁터 같이 치열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를 채찍질하는 것은 노동의 강도와 시간에 비례해 그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늘어난다는 자본주의 법칙과 힘들 때마다 그를 달래주는 종교와 가족이라는 존재였다. 가족, 돈, 종교는 아버지와 같은 이민자가 미국 땅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원천이다. 물질적 풍요는 아버지에게 이 땅에서 이뤄 내야할 자신의 목표이며 가장의 의무였다.

어릴 적 헨리는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왜 그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헨리가 보기에 미국에서 아버지가 맺는 인간관계라고는 민족적 동질감을 주는 한인교회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한국 상인들이 주축이 된 계모임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청과상을 여러 곳이나 운영하였지

1) 본 논문에 사용된 소설의 우리말 인용은 정영목의 번역판 『영원한 이방인』을 따른다. 단락인용에서 우리말 번역 뒤에는 『영원한 이방인』의 쪽수를, 그리고 영문 뒤에는 *Native Speaker*의 쪽수를 표기한다. 단락인용 외에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영문판의 쪽수만 표기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 그는 영어를 잘 못했고 집과 가게, 교회로 정해진 장소만 다니는 단조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서도 청과상을 운영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술자인 헨리는 한국에서의 아버지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나중에 아버지가 엔지니어로 훈련을 받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57). 헨리가 아버지에 대해 뒤늦게 안 사실은 그가 한국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엔지니어였지만 학연과 혈연, 지연 등이 받쳐주지 못하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없는 한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했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영어가 미숙한 아버지에게 엘리트 출신 엔지니어로 가졌던 지식과 기술 등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는 엘리트 엔지니어였지만 미국사회에서 그는 그저 어눌한 영어를 구사하며 청과상을 성실하게 운영하는 한 명의 낯선 아시아 이민자이자 자신들의 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 건너온 사람일 뿐이다. 주류에게는 이민자가 모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개인적인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다. 아래에 인용한 아버지 가게의 손님의 일화는 백인사회가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말해준다.

> 그 여자는 매일 가게에 왔다. 한번은 그 여자가 사과를 조금 깨물더니, 구릿빛 상처가 난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도로 내려놓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버지는 나를 팔꿈치로 찔러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했다. 나는 그녀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한 사과를 새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대개는 꼭대기를 잘라낸 피라미드 모양으로 과일을 완벽하게 쌓는 것으로 내 모든 좌절감을 해소했다. 다른 두 직원은 속에 더 많은 것들을 억누르고 있었다. (103)
>
> That same woman came in the store every day; once, I saw her take a small bite of an apple and then put it back with its copper mouthed wound facing down. He nudged me back to my station. I had to wait until she left to replace the ruined apple with a fresh one. Mostly, though, I threw all my frustration into building those perfect, truncated pyramids of fruit. The other two workers seemed to have even more bottled up inside them. (54)

아버지가 다른 곳에 새로운 청과상 가게를 열게 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헨리는 그를 돕게 된다. 아버지와 헨리는 몰래 사과를 살짝 깨물어보고는 살며시 놓아두는 몰상식한 백인 손님의 행동을 함께 목격하게 된다. 헨리가 그 손님에게 다가가려 하였지만 아버지는 행여나 단골손님을 놓칠까봐 못 본 척하라고 그를 제재한다. 헨리는 그 손님이 가게를 나간 다음에야 못 팔게 된 사과를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버지의 가게 안에서 헨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과일들을 완벽히 정리해내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분풀이하는 것이었다. 자존심보다 돈을 쫓고, 단골손님과 얼굴을 붉히기가 두려운 아버지의 비굴하면서 소심한 태도와 그 손님의 무례한 행동 사이에 끼인 채 울분이 쌓이고 삭히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헨리뿐 아닌 가게에 일하는 다른 이민자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이었다. 아버지는 “자본주의의 힘”(47)을 미국 땅에서 그가 가진 일종의 보이지 않는 힘이라 여겼다. 그는 돈이야말로 자신이 미국사회의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에게 돈과 종교적 믿음은 유일하게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헨리 또한 비굴한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게 무례한 손님에게 어떠한 다른 따끔한 반응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

가게의 손님 중 한 백인 여성은 아시아계 점원들을 향해 비꼬는 말을 내뱉는다. 그녀는 자신들의 사회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그들의 달러를 차곡차곡 벌어들여 어느새 자신들이 누리는 것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부를 축척해가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동양의 유태인들”(53)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미국사회에서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이 미국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치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미국 사회는 소수민족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책을 표방하며 인종차별금지 법안을 채택하고 다문화에 관한 내용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회의 단면을 들어다보면 아직도 그 내부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백인중심의 배타성이 잔재해있다. 백인 주류 사회 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적 편견으로 근본적으로 소수민족 출신들을 자신들과 다른 타자로 여기며 이 때문에 유색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들 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창래는 작품에서 아직도 미국사회가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을 향한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백인 손님의 무례한 행위를 통해 드러낸다. 헨리 아버지의 가게는 미국 법을 준수하면서 운영되는 곳이며 넓게 보면 미국 경제의 한 구성체이다. 그러나 백인 손님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아버지의 가게를 단지 아시아인이 운영하는 장소로 여기며 아시아계 점원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백인우월주의를 무례한 행위로 표출한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주류가 가진 이러한 편협하고 냉소적인 시선에 주눅이 든 채 달리 불쾌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떠한 효과적인 대처방법도 찾지 못한다. 헨리와 아버지는 백인 손님에게 달리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태도를 불식시킬만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했고 그저 모른 척 상황을 모면했다. 헨리는 손님의 이런 행동을 모른 척 넘겨버리게 만든 아버지의 비굴한 태도에 불만을 가졌었지만 그 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아버지의 방식에 순응하며 동조했다. 심지어 그는 노파가 자신의 친구에게 던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을 때도 그녀에게 불쾌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영어로 그들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와 다른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똑같이 모른 척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헨리는 아버지가 가진 이민자의 두려움 혹은 소심함을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게 내 아버지와 헨리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손님들의 무례한 말과 행동을 참아내며 못 본 척, 못 들은 척 연기했고 아예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들은 손님의 무례한 행위들을 묵인해버리는 소극적인 해결방식을 고의로 택함으로 자신들의 터전이 되는 가게 안에서도 비가시적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또한 가게 주인인 아버지나 아들 헨리, 소수민족 출신의 종업원들은 묵묵히 그들의 일만 하거나 일에 관련된 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님들의 눈에 그들은 가게 안의 세상 외에는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힘든, 즉 미국 사회 내에서는 비가시적인 존재로 비춰지며 인식된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름대로 가시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도 있다. 아버지는 손님들이 자신들을 매장 내 그들을 그저 따라다니며 필요를 채워주거나 시중을 드는 “그림자”(53)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할까봐 자신들의 존재를 그들에게 새롭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헨리에게 가게 일에 쓰이지 않는 영어 실력을 과시하도록 세익스피어 작품의 구절을 손님들 앞에서 읊게 다그쳤다. 아버지는 영어 구사능력을 갖춘 헨리를 통해 자신들은 가게 밖의 세상에서 가시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주류의 세계로 동화 가능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헨리는 뜬금없는 아버지의 요청에 투덜거렸지만 큰 저항 없이 이내 아버지의 다그침에 순종한다. 헨리 역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주류들이 자신의 존재를 주목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있다. 그는 손님들의 눈에 자신의 존재가 잘 띄지 않으며 영어를 잘 못하는 점원들 중 하나 쯤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영어를 백인들에게 뽐냄으로써 다른 점원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동은 주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아버지와 헨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언론은 아시아계 소수인종의 이민 성공사례가 많다는 것, 특히 그들의 자녀들이 비교적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모범적 소수인종’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 냈다. 언론은 극히 부분적인 통계로부터 학업에 대한 열의와 성과가 뛰어나며 근면 성실하고 자급자족하는 민족이라는 아시아인에 대한 일반화된 이미지를 유포했다. ‘모범적 소수인종’은 일견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모범적 소수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종' 담론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은폐하고 소수민족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온순한 이민자 상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모범적 소수인종'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정관념으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함으로써 소수인종 길들이기 정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성호는『언더독의 글쓰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 스토리'를 강조하는 또 다른 저의는 기회의 땅에서 상대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소수인종의 불평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이 당시 인권신장과 평등한 시민권에 대한 흑인들의 요구는 인권운동의 열기 속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 속에서 차별과 배제의 역사적 굴절을 겪고서도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낸 아시아계의 성공 스토리는 다른 소수 인종그룹의 인권향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 실패의 표시로 규정하는데 이용되었다. (153)

미국 사회는 오랫동안 '흑과 백'이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구도의 인종주의 담론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소수민족들이 미국 사회에 유입해 들어왔고 특히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긍정적인 활약이 도드라지자 이들을 '모범적 소수인종'으로 부르며 이에 맞는 삶을 살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길들였다. 이선주에 의하면, '모범적 소수인종'이라는 말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일궈낸 경제적 교육적 성취에 대한 칭찬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 어떤 한정 선을 그어놓은 경계 짓기인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한다(64). 특정 인종에 대한 칭찬 속에 담긴 의미를 뒤집어 보면 다른 인종에 대한 비하와 다를 바 없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결국에는 소수민족들 모두가 기득권의 이익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헨리의 아버지는 '모범적 소수인종' 담론의 표면적인 칭찬의 의미만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했다. 그는 물질적 풍요를 이뤄내면 주류가 누리는 권리를 자신도 갖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살고 그들이 타는 차를 소유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동화되려고 했다. 결국 경제적 성공을 이룬 헨리의 아버지는 백인 중산층이 밀집해 사는 아드슬리(Ardsley)에 입성한다. 헨리의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소유하며 외형적으로 부족할 것 없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실상 아드슬리는 아버지가 그의 사업적 수완과 고된 노동으로 버티며 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왔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축복의 공간이 되지 못했다. 헨리 가족은 백인성의 상징인 아드슬리에서 이전보다 더욱 긴장된 삶을 살아갔다. 헨리 부모님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여기기보다는 그들을 용인하고 받아준 백인 이웃들 덕분으로 생각했다. 헨리 가족은 아드슬리에서 주민들이 신경쓰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치 남의 동네를 방문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녀야했다.

아버지는 이사 직후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의 노력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내 수그러들어 버렸다. 헨리의 부모님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낮추며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편안함"(52)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또한 아버지는 다수의 미국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는 긴장감을 느꼈다.

> 아버지가 공중 앞에 나서는 유일한 경우는 나 때문이었다. 내가 애들과 농구 시합을 할 때면 손에 신문을 둘둘 말아 들고 느지막이 들어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관중석 한쪽 구석에 서서 시합을 보며 초조한 듯 신문으로 허벅지를 두드렸다. 내가 슛을 하는 것을 보려고 고개를 빼기는 했지만, 한 번도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응원을 한 적은 없었다. (100)

> The only time he'd come out in public was because of me. He would steal late and unnoticed into the gym where I was playing kiddie basketball and stand by he far side of the bleachers with a rolled-up newspaper in his hand, tapping it nervously against his thigh as he watched the action, craning to see me shoot the ball but never shouting of urging like the other fathers and mothers did. (52)

헨리의 농구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에 참가하는 아들을 응원하는 아버지로서는 기쁜 순간이지만 그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일부러 늦게 가서 한쪽 구석에 자리 잡는다. 경기장 안 다수의 미국 사람들 틈에 있는 아버지는 그들에게 주목을 받을까 경기 관람 중 응원이나 긴장 때문에 터져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조용히 신문지를 움켜쥐며 그의 허벅지에 두드리는 것뿐이었다. 아버지가 미국인들이 모인 장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오직 아들 헨리를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그 자신의 일로는 그들 속에 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교류가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헨리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늘 주눅 든 모습을 하고 스스로 쌓아올린 물질적 풍요를 편히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헨리의 눈에 비친 그의 아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는 주류 사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계 밖의 낙오자였다. “네 눈이 온통 이끌렸구나(led, 빨갛다는 뜻의 red를 잘못 발음한 것-옮긴이).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방으로 가서 눈물이 나오도록 웃어 젖혔다”(234).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헨리는 결국 영어에 서툰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헨리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백인사회의 냉소적 시선을 내면화했음을 보여준다.

주류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원했던 아버지는 긴장된 아드슬리의 삶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불편을 감수 하더라도 외적으로는 주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 대신 아버지는 아들 헨리가 내적으로 좀 더 주류에 다가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이는 헨리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아버지는 내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57). 헨리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한 적이 없고 아버지 또한 헨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는 아들 헨리가 주류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을 희망하였고 특히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그가 바라는 동화를 아들 헨리가 해낸 것이라 스스로 굳게 믿는 듯 보였다.

헨리는 백인 여성인 릴리아와의 약혼을 아버지가 반대할 것을 미리 염려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 문화적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로서는 백인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헨리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한번은 헨리가 사춘기 때 댄스파티에 함께 가려던 미국 여자아이에 관해, 아버지는 그 아이가 헨리를 좋아할 리 없다는 일방적인 판단을 헨리에게 내비쳤고 이는 아버지와 헨리 사이에 큰 다툼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애가 네 웃기는 얼굴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웃기는 눈을?”(73) 아버지는 미국 여자아이가 유색인종인 헨리를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고 헨리를 비웃었다. 또한 그는 헨리에게 그 아이는 단지 공짜로 파티에 들어가기 위해 헨리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모범적 소수인종’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애쓰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백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아버지는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인종차별주의적 시각도 함께 내면화했다. 때문에, 그는 백인 여자가 헨리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헨리의 염려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그와 릴리아의 약혼을 축하했다. 헨리가 보기에 아버지는 백인인 릴리아와 그녀의 가족들이 아들 헨리가 주류 사회에 더욱 깊이 동화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을 믿고 계신 듯 했다. 아버지는 그의 이러한 믿음을 결혼식이 끝나자 헨리에게 드러낸다. “그러고 보면 너도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구나”(58). 아버지는 헨리 또한 이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릴리아와의 결혼을 선택했다고 이해했다. 아버지는 백인인 릴리아와 같이 서있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그의 자랑거리로 여겼다. 또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헨리의 아버지는 주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의 대상이 되기 위해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 성공 스토리를 미국 원어민들에게 들려주길 원했다.

> 모든 원주민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고전적인 이민자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며, 자신을 영웅적인 신입자, 자족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시할 것이다. (97)
>
> Knowing what every native loves to hear, he would have offered the classic immigrant story, casting himself as the newcomer, self-sufficient, resourceful. (49)

아버지가 물질적 성공에 집착했던 것은 헨리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일종의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가 주류에게 더욱 다가가고 그들의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는 무일푼에서 시작해 미국 중산층의 외적인 모습을 갖추었고, 아들인 헨리는 좋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백인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함으로써 "고전적인 이민자의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자부심과는 다르게 아들 헨리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인물로 평가되었다.

아버지는 이민 1세대로서 한국에서 누렸던 지위를 포기하고 고된 일을 하는 이민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민 후 경제적 성공에 집착하며 가정에서는 가부장적 아버지상을 고집하며 살아왔다. 또한 그는 물질적 풍요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류 없이 소외된 삶을 살았다. 미국 문화에 익숙한 아들 헨리와 서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며 문화적, 세대 간의 갈등을 겪었다. 아버지는 인종관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지니지 못한 채, '모범적 소수인종' 신화를 내면화하고 주류가 바라는 아시아계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다. 결국, 아버지는 미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헨리가 긍정적으로 참고할만한 아시아계 미국 남성의 정체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II. 존 강과 미국 다문화주의의 한계

존 강은 헨리의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이다. 헨리의 아버지는 미국에 건너 온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청과상을 운영하는 경제적 활동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영어를 잘 못한 반면, 존 강은 아버지와 비슷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를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구사했다. 아버지는 그의 이름, 삶의 발자취를 누구하나 궁금해 하지 않는 눈에 띄지 않았던 존재였던 반면 존 강은 어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환영을 받았다. 심지어 지역 미디어의 화제가 되는 등 그가 가진 정치적 비전을 드러내 주목을 끄는 야심찬 인물이었다.

헨리에게 아버지만큼 나이든 한국계 미국인은 영어도 거의 못하고 가정 안에만 머무르며 소규모 자영업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존 강은 헨리가 알던 여느 한국계 미국인들과 달랐다. “나는 그를 알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139) 라는 헨리의 말에서 그가 이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한국계 미국인의 모습을 존 강을 통해 발견했음을 알 수 있다. 존 강을 알기 전 헨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한국적인 정체성들을 애써 부정했다. 주로 소수민족을 감시하는 스파이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를 만큼 그의 혼란은 깊어갔다. 하지만 존 강은 달랐다. 그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혼란스러움의 고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는 확신에 차 보였다. 계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존 강의 모습에 헨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한국계 미국인 남성으로 존 강을 인식한다.

헨리에게 존 강은 아버지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삶, 부족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거의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난공불락”(23)의 요새 같이 단단하고 커다란 느낌을 주는 아시아계 이민자의 성공스토리의 모델이 될 만한 전형으로 비춰졌다.

> 강은 자기 기반을 알고 있어. 그는 청과상과 세탁소 주인들의 기부에 죽고 사는 사람이지. 예배가 끝나면 회중이 돈을 봉투에 넣어 거리낌 없이 그에게 건네준다고 하더군, 자네가 그걸 직접 봐야 할 걸세. (77)

> He said, "Kwang knows his base. He lives and dies on contributions from grocers and dry leaners. It's said the congregation freely hands money to him after the service in envelopes. You'll have to see for yourself.” (38)

존 강에 관해 사전 조사를 했던 동료 잭(Jack)은 헨리에게 그의 정치기반과 정치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금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준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강은 자신과 같은 소수민족들을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그는 한인교회에서 20년 동안 장로로서 봉사하고 그의 아내 또한 유년 주일학교 교사를 맡는 등 존 강 부부는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한국 출신인 존 강은 오래된 한국 문화의 하나인 '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 예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상부상조의 모임인 계는 바쁜 농사철 서로의 일손을 돌아가며 돕는 노동 품앗이에서 이제는 서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계원들이 차례를 맞은 회원에게 십시일반 모은 회비를 몰아주는 것으로 경제 품앗이로도 활용된다. 헨리의 아버지가 이민 후 가게를 운영할 만큼 수중에 큰돈이 없었는데도 청과상 가게를 시작할 초기 사업 자본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한인 상인들로 조직된 계가 있어서 가능했다. 존 강은 이러한 계를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보 및 결속력을 돕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시의원에서 뉴욕 시장의 예비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존 강의 정치적 입지와 야망이 커지자,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그의 계모임은 다른 소수민족까지 새로이 계원으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선거사무실 소속 직원이 따로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존 강의 정치적 행보가 뚜렷해지고 그가 운영하는 계의 규모가 커지자 이를 예의 주시하는 비밀스러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스파이 헨리는 그의 계에 대한 정보와 정치적 자금의 흐름을 알아내는 일에 투입된다. 미국인들에게 존 강의 계는 그저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 정치조직이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속해있는 모임으로 인식된다.

> 강은 누가 '불법'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몰랐다. 그는 한 번도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편인가 하면, 계는 그에게 끈질기게 남은 한 가지 허영이었다. 온정적 체계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와 약간의 돈과 그의 축복을 청했을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출발점을 제공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상속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이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일할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처녀의 혼숫감이 든 함 같은 것을 주었을 뿐이다. (542)

> He didn't know who was an "illegal" and who was not, for he would never come to see that fact as something vital. If anything, the ggeh was his one enduring vanity, a system paternal, how in the beginning people would come right to the house and ask for some money and his blessing. He was merely giving to them just the start, like other people get an inheritance, a hope chest of what they would work hard for in the rest of their liv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러나 헨리가 바라보는 존 강의 계는 단순한 정치자금 마련의 통로가 아니었다. 존 강은 자신에게 후원하는 계의 명부에 담긴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따로 메모를 해 외우고 다닐 정도로 계원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기존의 계원들 뿐 아니라 새로 등록한 계원의 세세한 정보까지 신경 썼다. 헨리가 보기에 이러한 존 강의 행동은 출신과 배경을 떠나 이민자들을 정치적 공동체이자 가족으로 보듬는 행위이다. 존 강에게는 그의 계원들 중 누가 합법적인 미국시민이며 누가 불법체류자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들이 후원금을 기꺼이 내어놓거나 도움을 청하러 올 만큼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이 존 강에게 어떤 의미를 줄 뿐이었다.

계는 백인 중심의 미국 정치적 영역에서 존 강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딛고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는 희망에 날개를 달아줄 “온정적 체계”였다. 존 강은 아낌없이 계원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다. 그가 의지할 곳 없는 계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 그들에게는 그의 작은 도움이 척박한 미국 땅에서 시작한 새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마치 “처녀의 혼숫감이 든 함”을 얻는 기분이라는 것을 안다. 존 강의 계는 혼인 후 새색시가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해 들고 가는 친정어머니가 챙겨주신 혼수가 든 상자처럼 계원들이 이민을 통해 친정 같은 모국을 떠나 시댁으로 느껴지는 어렵고 두려운 새로운 세상인 미국에 내어 보여줄 수 있는 든든한 힘이었다. 존 강의 도움을 받은 계원들에게 그는 친정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때문에 그들은 존 강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 계는 그의 고도의 정치적인 도구이자 자신과 같은 소수민족들에게 이미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맛본 이민 선구자로서 그가 베풀 수 있는 선의인 것이다.

존 강이 계를 고수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다른 미국 정치인들이 흉내낼 수 없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그 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존 강에게 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그의 충성된 지지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독특한 제도였다. 계는 존 강과 자신을 후원해준 사람들 사이에 동질감과 같은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상호 신뢰를 느끼는 사람들과 계의 운영규칙을 미국 법의 테두리 안에 두는 것은 존 강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에 구속된 계의 운영이 그를 지지한 사람들과 자신이 그들에게 느끼는 상호간의 믿음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는 신뢰가 법을 초월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존 강이 미국 사회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본 자만이었고 “허영”에 가까운 꿈이었다. 결국 계는 그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어 또 다른 관련 보도가 나온다. 특종이다. 존 강이 감독하는 공동체 돈 모임이 있다는 확증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모임은 사설 은행과 같아, 회원들에게 죽적인 이자와 원금을 준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한인이다. 이 모임은 어떤 금융 위원회에도 등록되지 않았으며, 세무 당국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묘하게도 이 정보는 이민귀화국의 지역 책임자에게서 나온다. 거의 40명에 달하는 사람과 그들 가족의 출생, 입국, 귀화 기록이 없다는 대답이 나온다. 불법 이민자의 국적은 다양하다. (534-35)

Now another related report, an exclusive. There is hard evidence of a community money club that John Kwang oversees. The club is like a private bank that pays revolving interest and principle to its members, many of whom are Korean, Lending activities that aren't registered with other any banking commission and haven't reported to tax authorities. The information, oddly, originates from the regional director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328-29)

헨리가 존 강의 선거사무실 지하에서 몰래 작성했던 보고서 안에 담긴 계원들의 명부는 상사인 호글랜드(Hoagland)를 거쳐 이민국(INS)으로 넘어간다. 자신의 의뢰인을 모르는 헨리는 존 강의 계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적 자금 모임이고 이를 이용해 존 강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정치적 경쟁상대를 의뢰인으로 추측해 왔다. 그러나 헨리는 호글랜드가 그에게 스파이 업무를 배당할 때부터 존 강에 대한 다른 조사 보고서는 요청하지 않았었고 그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까지 한 말을 생각해 냈다. 헨리는 존 강을 스파이 하도록 시킨 배후가 상대 시장후보가 아닌 미국 이민국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이민국은 존 강의 계원 명부를 통해 추방할 불법 이민자 명단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존 강을 돕는 계원들 중 불법이민자가 나오면 그들을 과감히 추방했다. 이는 주류가 정해놓은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돕는 자들을 미국 사회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소수민족을 향한 주류의 경고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이자 불안한 사회적 위치에 놓인 소수민족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주류 사회에 순종하도록 강요한다. 주류는 불법을 저지른 존 강을 더더욱 그들의 사회 안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퇴장을 원한다. 그들이 입을 모아 피켓에 적힌 단순한 운율의 구호에 맞추어 소리를 지른다. *어이, 야, 강은 떠나라!* 그들의 팸플릿은 존 강의 돈모임 회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훔쳐 갔느냐고 묻는다. 그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은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원래 왔던 곳으로 쫓아 버리고 싶다고, 그들을 '밀입국 주선자 강'과 함께 바다에 빠뜨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 옆에, 강의 집 진입로 앞에 사람들이 두 개의 시트를 바늘로 꿰맨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거기에는 미국인들을 위한 미국이라고 적혀 있다. "우리는 염병할 우리의 미래를 돌려받고 싶다." (537-38)
>
> Now the people want him out. Yelling together for his ouster in the simple rhyme of the picket: Hey, Ho, Kwang must go! Their literature asks how many of John Kwang′ money club members have stolen their job. They chant that they came from, kick every last one of them, let them drown in the ocean with "Smuggler Kwang." Next to them, in front of his driveway, people stand behind two sewn-together sheets spray-printed with the words: AMERICA FOR AMERICANS. "We want our fucking future back." (331-32)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에 존 강이 엮이면서 그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그의 정치적 행보를 못 마땅히 여기던 주류와 미성년자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데 대해 실망하고 그에게 등 돌린 사람들은 이제 그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시위를 한다. 그들이 외치는 "미국인들을 위한 미국"이라는 말은 주류 사회의 속내를 과감히 드러내는 말이다. 주류는 미국은 새로 유입된 이질적인 소수민족들과 같이 공생하는 공간이 아닌 자신들과 같은 백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다영은 이 장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동화 아니면 추방을 강요하는 주류 사회의 논리, 그리고 미국 사회는 '미국인'에 위한 단일한 집단이라는 논리는 존 강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외치는 "미국은 미국인을 위한 곳"이라는 배타적인 구호 속에 드러난다. 존 강의 귀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민자의 사회 내 소속 여부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주류 사회에 있어서 이민자의 동화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기존의 질서와 권한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동화여야만 한다. 그 수준을 넘는 순간, 주류 사회로부터의 추방이 뒤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누가 사회에 소속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시민권이 아니라 지배 사회의 이데올로기임이 드러난다. (28)

주류 사회는 미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을 그들의 필요를 위해 존재할 뿐이며 사회 내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로 여긴다. 주류들은 그들이 꺼려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궂은 일들을 묵묵히 해온 소수민족들의 노고를 이해하거나 위로해주기보다는 그들이 노동의 대가로 벌어간 돈, 싼값의 노동력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겼다는 피해의식만 느낀다. 이혜경에 의하면 “존 강이 이루고자 했던 다문화주의 사회 미국을 향한 염원과 노력은 단일 문화주의적 사고에 묶인 백인 주류 미국인에게는 시기상조적 행동이었음을, 따라서 완전한 성취는 아직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91). 백인 중심의 주류가 생각하는 미국의 미래에는 소수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림은 없다. 주류는 소수민족 출신으로서는 자신들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올 수 없으며 그런 시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곧 미국 사회에서 제재의 대상, 퇴출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린다.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은 존 강의 행방은 묘연했다. 며칠 만에 그는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 그의 모습을 보고 격양된 사람들은 그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한다. 그 순간 헨리는 존 강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그에게 휘두른 폭력을 대신 감내한다. 헨리의 이런 행동을 이혜경은 “그들의 집단린치 혹은 비난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알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자 하는 모습”이라 한다(77). 헨리는 존 강의 선거사무실 지하에서 몰래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누군가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을 상상하니 마치 아버지의 가게일을 엿보는 것 같은 설명하기 힘든 불편한 기분이 들었었다. 헨리의 눈앞에 존 강이 무참히 맞는 것을 보니 그의 가족 혹은 그가 맞는 것 같은 참기 힘든 기분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헨리는 객관성을 잃고 자신의 스파이 대상인 존 강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존 강에 대한 헨리의 감정에 관해 구은숙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곧 헨리의 아버지이고 한국인 이민자이며 곧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 한다(54). 헨리는 존 강과 한국적인 문화에 대해 교감을 나눴고 민족적인 동질감을 느꼈었다. 헨리는 자신과 같은 한국계 미국인이며 자신의 이상적인 모델이 된 존 강에게서 소수민족이 가시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었다. 하지만 헨리의 희망은 존 강의 몰락으로 좌절되었다. 군중 속에서 홀로 외롭게 비난과 폭력을 감당하고 있는 그를 대신해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으로 헨리는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언제나 자신감에 차있던 존 강은 이제 없다. 헨리 앞에 선 존 강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힘없고 연약한 노란 얼굴을 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존 강은 자신의 전성기를 같이 보낸 헨리를 보고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헨리는 처음부터 존 강에 대해서 그의 깊은 세계까지 파헤치려는 계획은 없었다. 존 강은 그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커다란 음모의 덫에 걸려들었고 그 스스로도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러 결국 그의 “마지막 가면”(141)이 세상에 드러나 버렸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였지만 헨리도 알아갈수록 그에게도 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 남자로서 느껴지는 단점을 발견했다. 헨리가 닮고 싶은 이상적인 한국계 미국인의 모습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한 헨리는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그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재평가하기에 이른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는 이곳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빈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하는 야망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재편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인간을 다시 발명해야 했다”(333). 그의 아버지는 이민자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헨리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강인함만을 기억해 그가 사회적으로 지닌 부족함인 영어의 한계와 미국적 정체성의 결핍 때문에 처했을 그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했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좋은 학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족만을 위해 달려왔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는 “진정한 용기이자 희생”(333)인 것이다.

헨리는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조롱하던 아버지의 삶을 이해한 후 그의 한국식 영어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지금, 어눌하기 작이 없는 그의 말일지라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다 줄 용의가 있다”(337). 폭넓은 시선으로 다시 바라본 아버지는 그 나름대로 미국 사회 내 한계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분이였던 것이다. 헨리는 여러 불미스런 사건에 존 강이 휘말리고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언론의 집중보도와 시민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으며 한국으로 추방당한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 헨리는 존 강처럼 자수성가하고 정치인으로까지 성공한 정치적인 인물도 주류가 소수민족 출신에게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 이상까지 올라갈 수 없으며 이를 뛰어넘으려는 욕심을 내는 순간 추락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불안감을 느낀다. 헨리는 존 강이 자신의 보고서로 인해 몰락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의 몰락과정을 통해 아직도 소수민족에게 냉담한 미국 사회 분위기를 다시 경험한다.

존 강의 몰락은 그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존 강은 자신과 같은 소수민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려했고 미국 사회에서 비가시적으로 흩어진 그들을 일깨우고 응집력을 높여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려는 일련의 노력들을 해왔다. 그의 활동이 뚜렷해질수록 그는 주류 기득권 세력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적인 인물로 부상했고, 때문에 감시와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주류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세계로 낯선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혹여 들어올지라도 주류가 허락하는 선 까지만 입장을 허용하며 경계선을 넘으려는 자는 존 강처럼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존 강의 몰락은 미국이 여전히 인종적,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사회임을 드러내면서 미국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V. 원어민으로서의 헨리

이창래는 주인공 헨리를 통해 그가 바라본 이민 1세대인 부모님의 삶과 그가 스파이 일을 하며 만난 소수민족 출신의 미국인들, 아들 밋(Mitt)과 아내 릴리아와의 일화들을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한다. 서술자 헨리의 직업은 사람을 관찰하고 그에 관해 보고서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스파이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헨리의 정체성은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그의 성장환경과 스파이로서 미국 사회에서 겪은 여러 에피소드와 그의 아내 릴리아가 건넨 메모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릴리아의 메모 속에 나열된 말들을 통해 헨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언어가 이민 2세대인 헨리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헨리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자동으로 승계 받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의 부모님은 미국에 건너온 뒤 거의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미국이민 성공신화에 동참한 이민 1세대이다. 부모님은 백인 주류와 외적으로 동화된 삶처럼 보이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까닭에 그들과는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없는 조용한 삶을 살아간다. 반면 헨리는 미국 공교육을 받으며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직업을 갖고 백인 여성을 아내로 맞는 등 극히 평범한 삶, 그의 부모님보다는 좀 더 내적으로 주류 사회에 가깝게 뿌리내린 동화된 삶의 모습을 보인다.

헨리의 삶의 궤도를 보면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의 삶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어다보면 그가 가진 이름부터가 다른 미국인들과는 평범하지 않다. 그의 한국식 이름은 박병호.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헨리 박(Henry Park)이다. 그의 성은 한국 성인 박 씨이지만 Park으로 표기된다. 그의 짧은 이름 안에는 한국의 정체성을 띄는 성과 미국의 정체성을 띄는 이름이 함께 혼재해 있다. Henry Park, 그의 이름을 듣기 만해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가 아시아계 출신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아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헨리를 처음 만나던 날, 릴리아는 그의 이름을 듣고 단번에 한국 핏줄임을 알아챈다.

> 박하고 김은 반드시 한국 성이고, 정이나 조나 이는 한국 성일 수도 있고 중국 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일본 성은 아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32)

> A friend in middle school taught me about Korean names, how Park and Kim were always Korean, the other names like Chung and Cho and Le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aybe Korean, maybe Chinese. Never Japanese. Am I getting this right? (10)

헨리는 미국에서 박병호 대신에 헨리 박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한혜숙은 그가 헨리 박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으로 동화되려는 그의 욕구에 의한 것이라 한다(14). 그가 만일 병호라는 한국식 이름을 미국에서 사용했다면 그가 가진 이질적인 요소가 더욱 도드라졌을 것이다. 헨리는 이를 염려해 미국식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헨리의 성인 '박'은 아시아의 나라 중 한국인만 쓰는 성으로 그의 출생의 근원이 한국이라는 것과 그가 동양인의 외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자신의 외모나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는 남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숨길 수 없다. 헨리는 그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주류의 사회로 다가갈수록 그가 가진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헨리는 그의 바꿀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 때문에 주류 사회로 동화에 그가 한계를 겪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그는 릴리아가 가진 백인의 유전적 형질을 아들 밋이 더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의 주류 사회를 향한 동경이 투영되었다.

어린 시절 헨리는 미국 아이들에게 이질적으로 인식되는 그의 동양적 외모로 인해 받았던 일방적인 인종차별적 놀림이 아들 밋에게도 이어질까봐 염려했다. "우선 그 아이들은 밋에게 멋, 몽그럴, 해프브리드, 바나나, 트윙키 같은 말들을 가르쳤다"(103). 그가 염려했던 바대로, 헨리가 겪었던 과거의 일은 다시 밋의 삶의 역사로 되풀이 되었다. 심지어 아이들은 헨리와 밋이 같이 있는 것을 본 후 더욱 심한 인종차별적 비속어를 뱉어내고 밋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다. 밋은 헨리에게 물려받은 그가 가진 혼혈의 외모로 인해 그런 말을 들어야만했다. 하선우는 "미트(Mitt)의 이름은 잡종 개를 뜻하는 mutt를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혼혈의 외모 뿐 아니라 이름에서도 혼성적인 상징이 나타난다고 한다(25).

헨리는 밋이 당한 일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린다. 헨리의 아버지는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장난감을 빼앗겨 온 그를 대신해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어눌한 영어로 항의를 하며 다시 그렇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어릴 적 자신을 놀리던 아이들이 자라 다시 그들로부터 온 아이들은 이질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인 밋을 역시나 타자로 여겼고 놀렸다. 백인 어머니를 둔 밋은 혼혈외모를 지녔지만 주류 사회에서는 헨리와 같은 동일한 타자로 구분되었다. 헨리가 밋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헨리를 대신해 그를 놀리던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가 항의를 했듯이 헨리도 밋을 놀리던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가 잘못을 알리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는 주류의 냉담한 시선에 달라진 것은 오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의 아버지보다는 나은 영어로 밋이 당한 부당한 일을 개개인에게 알리는 것뿐이었다.

한편 백인 여성 릴리아는 자신의 아들 밋이 억울한 놀림의 대상이 되고서야 미국에서 이질적 요소를 지녔다는 이유로 타자로 치부된 헨리와 밋을 대하는 주류 사회 내 뿌리 깊은 백인우월주의 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비난한다. 하지만 이것은 릴리아가 아시아계 미국인인 헨리와 결혼함으로서 주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와 섞여 살며 그들의 아픔을 보고 함께 겪어서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헨리는 주류의 차별적 만행이 밋에게도 자신의 유산처럼 이어졌고 그는 밋도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평생 살아갈 것을 안다. 밋이 미국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을 때, 헨리는 “나는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안다. 아이는 용서하거나 잊지 않는다. 스스로 풀어 나갈 뿐이다”(104)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헨리의 말에서 특히나 미국 사회 내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백인 중심의 주류의 차별적 시선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들의 사회 및 문화적 인식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개인이 스스로 아픔을 달래며 치유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헨리는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올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공교육을 받았고 그가 구사하는 영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어 발음에 없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 발음에 가끔씩 실수를 하곤 한다. “나는 지금도 가끔 little 대신 riddle 이라고 말하고, vent 대신 bent라고 말한다”(234). 그의 실수는 원어민들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에 대해 언어치료사인 릴리아는 모국에서 이미 형성된 어떠한 “정신적 통로”(234)의 존재 때문에 후천적인 교육으로는 절대로 이미 모국적 정체성의 통로를 지닌 원어민처럼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릴리아의 말에 따르면 완전한 영어 원어민이 되려면 언어적인 배움 이전에 깊이 있는 미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주류는 미국인과는 다른 발음 구조를 가진 영어에 어눌함을 안고 있는 소수민족 출신에게 이 점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영어만을 옳은 것으로 강요한다.

이러한 태도에는 이민자들이 미국 주류의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미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강창형에 따르면, “바르지 못한 민족주의를 가진 원어민은 그들 나라에 이주한 소수민족들을 지배하고 종속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신속하고 조용하게 그들의 문화에 흡수시켜 동화시키려한다”(8). 미국 정부가 소수민족 출신들에게 제공하는 미국 사회로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에는 백인 스테레오타입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것이다. 하지만 헨리 또한 이러한 주류사회의 이중성과 그들 저변에 깔린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이질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자신을 그런 모습에서 탈바꿈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화주의를 받아들이는 한계를 보인다.

헨리가 영어에 집착하는 이유는 영어가 주류의 언어이며 이를 얻지 못하면 주류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도원에 따르면 "헨리의 언어적 압박감은 백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만이 우월하다는 허위의식에 대한 동화작용의 일부인 것이다"(21). 영어는 항상 헨리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주류의 세계로 동화하는데 장애물로 여겨졌다. 헨리가 성장 후 가정의 밖을 내딛을 때부터 영어라는 존재는 끈질기게 그의 생각을 지배한다. 어릴 적 가정에만 머물렀을 때 그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영어를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학교에 입학하자 그에게 영어의 존재가 크고도 무섭게 다가온다.

> 내가 1학년 때, 우리 집과 우리 언어라는 사적인 영역을 떠난 최초의 시기의 일이었다. 나는 영어가 우리 한국어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마치 다른 종류의 외투를 입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나는 언어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또는 내 혀가 처음 말을 시도할 때부터 꽁꽁 묶이고, 그렇게 뻣뻣해지고, 덫에 걸려 죽어 가는 짐승처럼 몸부림칠 줄도 몰랐다. 원어민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음하기가 힘들다, 한국어에서는 L 발음과 R 발음이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B와 V도 없고, P와 F도 없다. 나는 늘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발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387)

> It was my first year of school, my first days away from the private realm of our house and tongue. I though English would be simply a version of our Korean. Like another kind of coat you could were. I didn't know what a difference in language meant then. Or how my tongue would tie in the initial attempts, stiffen so, struggle like an animal booby-trapped and dying inside my head. Native speakers may not fully know this, but English is a scabrous mouthful. In Korean, there are no separate sounds for L and R, the sound is singular and without a baroque Spanish trill of roll. There is no B and V for us, no P and F. I always thought someone must have invented certain words to torture us. (233-34)

사회적 교류가 많이 없었던 어린 시절에 헨리는 한국어와 영어는 그저 종류가 다른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헨리는 미숙한 영어실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탓에 그들로부터 완벽한 영어를 습득할 수 없었다. 그의 부모님의 삶의 영역은 한인사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를 접할 기회 또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별로 없었다. 언어와 정체성간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몰랐던 어린 헨리는 그저 한국어와 영어는 “다른 종류의 외투”(233)라는 생각에 집에서는 한국어의 외투를 입고 학교에서는 영어라는 외투를 입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헨리는 학교에 입학하자 남들과 다른 자신의 영어발음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하는 영어를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발음으로 가득한 복잡한 언어로 느끼게 되었다.

헨리는 가정 안과 밖에서 각기 다른 환경을 접한 탓에 이중의 정체성을 가졌고 한국인의 정체성 혹은 미국인의 정체성 어느 하나 꼭 들어맞는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헨리가 느끼는 언어적인 두려움과 그가 어디에도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두 문화 사이에 끼인 경계인이라는 존재인식은 그를 정신적인 고립감 상태로 몰아갔으며 육체적으로도 스스로 자신을 가두며 사람들 속에서 잔뜩 움츠려들게 만들었다.

>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이 그런 식으로 하얀 모자를 쓰고 멋진 말을 타고 시내 중심가를 활보하는 모습을 그려 본 적이 없다. 나는 주로 심야 마차를 타고 왔다. 이런 말을 해도 좋다면, 나는 늘 초대를 받은 곳, 아니면 초대 없이 가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곳만 찾아다녔다. 나는 어렸을 때 그쪽에서 먼저 나에게 접근하기 전에는 어떤 학교 클럽이나 조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미리 계획되지 않았으면 친구 집에서 먹거나 자려 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내게 관대할 것이라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 한다고 절대 가정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승인이나 재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나를 마음대로 불러라, 동화된 자, 아첨꾼. 순종하는 외국인 얼굴의 소년. 나는 예전부터 당신이 말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으며, 늘 두려워하고 원한을 품고 슬퍼하는 신입자의 모든 변형이었다. (271-72)

> I never envisioned myself in that kind of white hat, though, astride some fine horse, galloping into the main street of town. I mostly come by the midnight coach. If I may say this, I have always only ventured where I was invited of otherwise welcomed. When I was a boy, I wouldn't join any school club or organization before a member first approached me. I wouldn't eat of sleep at a friend's house if it weren't prearranged. I never assumed anyone would be generous to me, or in any way helpful. I never considered it my right to expect approval of sanction no matter what good I had done. So call me what you will. An assimilist, a lackey. A duteous foreign-faced boy. I have already been whatever you can say or imagin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very version of the newcomer who is always fearing and bitter and sad. (160)

헨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어디든 당당히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소심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가진 이중의 이질적인 정체성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고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존재가 이질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존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곳으로만 가기를 원했다. 헨리는 자신이 가진 이질성으로 인해 그의 마음의 문을 먼저 굳게 닫은 채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자존감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동화된 자, 아첨꾼, 순종하는 외국인 얼굴의 소년," "늘 두려워하고 원한을 품고 슬퍼하는 신입자의 모든 변형"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자조적인 정의는 미국사회에 동화되기를 열망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냉소이자 소수민족으로 느끼는 좌절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헨리는 법적인 미국인이지만 미국 사회로부터는 완전한 미국인으로 승인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주류에게 그 자신을 그들과 동일한 미국인으로 인식해주기를 요구할 권리 또한 그에게 없다는 것을 헨리는 안다. 헨리는 스스로의 선택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주류의 시선 속에 사로잡힌, 주류의 선택을 받아야만 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진정으로 헨리가 원하는 것은 주류와 다를 바 없는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봐주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만 인정받는 반쪽짜리 미국인이 아닌 그가 원하는 곳 어디에나 소속될 수 있고 주류 사회의 차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헨리의 모습으로는 주류에게 곧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류는 끊임없이 공교육이란 제도적 장치로 그를 변화시키려 했다.

헨리는 학교에 입학하자 한국발음 자체에 없는 영어 L/R, B/V, P/F의 발음구분을 혀에 입히는 훈련을 해야만 했다. 원어민들에게만 들리는 미묘한 발음의 차이를 그가 구분하고 익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눌한 그의 발음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헨리는 영어의 존재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웠다.

내가 매일 특별수업을 받기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교실을 나갈 때면 앨리스는 나를 놀리곤 했다. 내가 받는 특별수업은 '언어교정'으로, 나는 바로 그 수업 이름을 발음하기 힘들어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도 내가 그 수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 외의 다른 학생들은 부적응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였다. 사실 그 수업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려운 환경 출신임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었다. 부모가 싸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거나, 마약을 하거나, 자식을 때리는 집안 출신, 아니면 외국어를 하는 집안 출신. 몇 명은 입이나 귀에 진짜로 문제가 있었지만, 나머지 아이들이 그 수업을 받게 된 것은 제도의 좌절감 도는 호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389)

> Alice used to sneer at me when I left our class for my special daily period upstairs. The class was Remedial Speech, and I accepted my own presence there if only because of the very trouble I had pronouncing it. By association, though, so was I. In truth, the fact that you were in the class likely meant you came from a difficult background, homes where parents fought of took drugs of beat their kids of maybe spoke a foreign language. A few had genuine problems with their mouths of their ears, but the rest of us, we were sent there by the grace of either too much institutional frustration of goodwill. (234-35)

헨리에게 발음교정 수업은 그가 가진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평생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같이 교정 수업을 듣던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모두에게 부적응의 존재로 낙인찍혀 있었다. 그런 아이들과 교정 수업을 같이 듣는다는 것은 그 역시 부적응의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됨을 의미하며 이런 생각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특히 그가 수업을 받으러 갈 때 그 사실을 알던 친구 앨리스가 보낸 색안경을 낀 시선에 헨리의 수치심은 더욱 가중되었다. 헨리는 앨리스라는 백인 여자아이에 대해 그 애가 가진 서구적인 큰 키와 광택이 도는 듯 밝은 흰 피부의 살갗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자신이 갖지 못한 백인성을 가진 그녀를 질투가 깊다 못해 미움이란 감정을 느꼈었다. 그 아이의 영어는 헨리에게 완벽하게 느껴졌고 실수투성인 그에게 어떤 우월감이 느껴지기도 했었다.

릴리아와 처음 만나던 날 헨리는 그녀에게 소수민족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하는 영어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먼저 털어놓았다. 이는 아직도 그의 영어에 대해 영어 원어민 앞에서는 자신이 없다는 그의 속마음의 표현이다. 그녀 또한 헨리가 자신의 영어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릴리아는 헨리가 영어를 말할 때 그 자신도 모르게 표정을 짓는 습관을 알려준다.

> 자기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표정이거든요. 나 더러 맞추어 보라고 한다면, 원어민이 아니라는 쪽에 걸겠어요. 들었죠? 릴-야 하고 아주 의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안 그러려고 하지만, 모음 소리를 귀여겨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신경을 쓰는 거죠. (3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You look like someone listening to himself. If I had to guess, you're not a native speaker. See? You said *Lee-ya* so deliberately. You tried not to but you were taking in the sound of the syllables. You're very careful. (12)

헨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말할 때면 자신의 발음을 스스로 들으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런 행위는 자연스럽게 그의 표정변화를 가져왔고 릴리아는 이를 꼬집어냈다. 다른 사람이면 무심히 지나 칠 수도 있는 헨리만의 습관을 그녀는 언어에 문제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발음을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탓에 단번에 눈치 챘던 것이다.

영어 원어민이자 언어치료사라는 직업 전문성까지 갖춘 그녀에게 받은 날카로운 평가가 헨리에게는 씁쓸할 뿐이었다. 헨리는 그가 가진 이질성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원어민"의 영어를 구사함으로써 주류 사회로 스며들어가기를 희망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어에 강한 자의식을 보이는 이민자 2세대로서 자신이 영어로 인해 겪은 좌절감을 아들 밋은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릴리아는 주말에는 한인학교에 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고국의 언어를 결코 배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생각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 애가 자신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의 감각만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내 희망이기도 했다. 하나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삶. 그래야만 아이의 반은 노란색인 넓적한 얼굴로는 얻을 수 없는 권위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이것은 동화 주의적감성이며, 나 자신과 이 땅의 추하고 또 반은 맹목적인 로맨스의 일부이기도 하다. (439)

> And despite Lelia's insistence that he go to Korean school on the weekends, I knew our son would never learn the old language, this was never in question, and my hope was that he would grow up with a singular sense of his world, a life univocal, which might have offered him the authority and confidence that his broad half-yellow face could not. Of course, this is assimilist sentiment, part of my own ugly and half-blind romance with the land. (266-67)

릴리아는 밋이 한국 문화도 함께 알기 바라는 마음에 주말을 이용해 한인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헨리는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 그는 밋이 오직 "하나의 감각" 만을 가지길 원했다. 헨리는 가정 안에서는 한국 문화, 가정 밖에서는 미국 문화에 동시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이민자 가정이란 환경에서 자란 탓에 '두 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의 감각'인 한국적 정체성과 미국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헨리는 그의 이중의 정체성으로 인해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혼란과 갈등을 아들 밋은 겪지 않고 오직 하나의 미국적인 정체성만을 가지고 편안히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헨리는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미국사회에서 혼혈적인 외모를 지닌 밋이 당당한 미국인의 삶을 살기위해서는 그들의 영어와 사고,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헨리가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하기를 꺼려하면서까지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원하는 것은 소수민족 출신에 대한 냉랭한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칫 이질적인 존재로 비춰진다는 것은 그들로부터 영원히 타자로 인식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헨리가 가진 존재론적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밋에게 따로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밋은 영어를 잘 못하는 그의 할아버지와 완벽한 소통을 보여주었다.

> 밋은 할아버지와 놀 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나름으로 완벽했다. 둘 사이에 질문이 생기면 아이는 노인네가 한 말을 그냥 되풀이했다. 아버지의 혼합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메아리처럼 반복하곤 했다. 그 말 또한 배우려 했다. 그들에게 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밋은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세밀한 단계적 변화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그 음들을 흉내 낼 수 있었다. 어쩌면 밋은 비록 잠깐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진정한 세계, 이질적인 선율들이 풍부한 세계라고 상상했을 수도 있다. (396-97)

> When Mitt played with my father their communication was somehow wholly untroubled, perfect in its way, and if there were question between them the boy would simply repeat what the old man said, try to echo his pidgin, his story, learn that talk, too. I suppose they could build a bridge because they needed one. He was mimic the finest gradations in our English and Korean, those notes of who we were, and perhaps he could imagine, if ever briefly, that this was our truest world, rich with disparate melodies. (239-40)

헨리는 그의 아버지가 가진 한국적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거부했다. 그는 아버지가 구사하는 어눌한 영어 또한 인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밋은 달랐다. 밋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그의 언어를 따라하고 배우기까지 했다. 헨리는 밋에게 행여나 언어적인 어떠한 혼란을 줄까봐 그에게 책을 읽어주지도 못할 정도로 조심스러워 했었다. 오직 그 역할은 영어 원어민의 권위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진 “최고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239)인 릴리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밋과 아버지 사이에는 헨리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가 존재한 것 같았다. 헨리가 절대로 편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혼합어를 밋은 이해했다. 조수현은 헨리가 밋을 볼 때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인 헨리 그리고 밋 자신의 미묘한 언어적 차이를 알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헨리 자신이 가진 이중의 언어, 문화적인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느꼈다고 말한다(47). 헨리는 밋이라면 한국적 정체성을 고수하는 그의 아버지와 그것을 부정하며 미국적인 정체성만을 추종해온 자신과의 갈등을 불식시킬 수도 더 나아가 소수민족과 미국 주류사이를 잇는 매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진 적이 있다. 하지만 밋이 백인 아이들과 놀이를 하다가 그들에 의해 깔려 죽는 사건으로 헨리가 한때나마 그에게 가졌던 희망은 좌절되었다. 밋의 죽음은 아직도 미국 주류는 혼종적인 존재를 편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뿐인 아들 밋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의 죽음으로 인한 아물지 않는 고통이 도화선이 되어 헨리와 릴리아의 관계는 급격히 멀어져 버리고 만다. 릴리아는 결국에 일을 그만두고 긴 여행을 떠난다.『원어민』은 릴리아가 떠나려고 국제선 탑승하기 전에 헨리에게 얼룩이 있고 닳기도 하며 구겨진 한 메모를 건네면서 시작한다. 처음 헨리가 메모를 아내에게 건네받을 때는 그녀가 어떠한 의도로 메모를 쓴 것인지, 메모지에 조각처럼 끊어져 나열된 말들의 내용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헨리는 릴리아가 그들의 결혼생활이 파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그녀 자신의 책임회피와 헨리의 마음에 생채기 내기 위해 쓴 그간의 결혼생활에 대한 보고서라고 치부했다.

또한 헨리는 릴리아가 메모를 준 의도와 그 안에 담긴 목록들의 의미를 자신이 스파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결혼생활 동안 쌓은 그를 지키는 견고한 비밀이란 방어벽을 릴리아가 허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가 메모의 내용을 담담히 지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던 차에 침대 밑에서 릴리아의 또 다른 메모를 발견한다. 그 메모에는 “언어를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6)이라는 그녀의 말이 적혀있었다. 영어에 관한 말은 헨리가 가진 사실의 모습이었다. 헨리는 릴리아의 메모를 파경을 맞은 결혼생활에 대한 그녀의 울분 의미로만 애써 받아 넘겼지만 그녀의 또 다른 메모를 발견하고는 릴리아의 모든 메모는 그녀가 지켜본 헨리의 정체성들에 대한 촌평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떠나기 전 남긴 메모이다.

- 당신은 숨기는 게 많아
- 인생에서는 B+짜리 학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무엇보다 먼저 바그너와 스트라우스를 흥얼거리는 사람
- 불법 외인
- 정서적 외인
- 황화(黃禍) : 신미국인
- 침대에서는 훌륭함
- 과대평가되고 있음
- 파파 보이
- 감상주의자
- 반(反) 낭만주의자
- 분석가(빈칸은 스스로 채우도록)
- 낯선 사람
- 추종자
- 반역자
- 첩자 (25)

- You are surreptitious
- B+ students of life
- first thing hummer of Wagner and Strauss
- illegal alien
- emotional alien
- genre bug
- Yellow peril : neo-American
- great in bed
- overrated
- poppa's boy
- sentimentalist
- anti-romantic
- analyst (you fill in)
- stranger
- follower
- traitor
- spy (5)

릴리아의 메모 첫 글에 "당신은 숨기는 게 많아" 라는 글이 적혀있다. 릴리아의 머릿속에 남편 헨리에 대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숨기는 게 많은 의문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헨리는 자신이 가장 솔직해야하는 아내인 릴리아에게 조차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직업이 사설 회사의 스파이라는 것을 숨겼었다. 자신의 일에 대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심을 가지고 묻는 릴리아에게 마치 더 자세히 묻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그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얼버무리며 일에 관련된 대화를 서둘러 마친다. 그녀는 결혼생활 내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충 둘러대는 헨리의 모습에 헨리다운 말이라며 실망감을 내비친다. 조수현에 의하면, 릴리아가 '헨리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의 모습을 감춘 헨리의 모습에 대해 릴리아가 상처를 느끼며 그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97). 사실 릴리아는 헨리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메모의 제일 마지막에 "스파이"라는 글을 적음으로써 헨리에게 그녀 자신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릴리아의 메모 속 "숨기는 게 많아"라는 말은 릴리아에게 헨리가 비밀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진 스파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설명한 말로도 볼 수 있다. 헨리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위장된 가면을 쓰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캐내는 은밀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스파이활동은 헨리에게 다양한 가면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복잡하고 결말을 알 수 없는 감정적 음모들을 꾸며냈다. 우리는 그들의 친지가 되기도 하고, 허물없는 친구가 되기도 했다 이따금씩 연인도 되었다"(18). 스파이로서 헨리는 릴리아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감추는 가면을 써야만 했으며 그가 만들어낸 허구의 정체성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스파이 대상을 염탐하기 위해 거짓의 삶을 살아온 헨리의 모습이 이제는 릴리아에게 조차 그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힘든 정체성이 모호한 "낯선 사람"(6)이 되었다. 김선영에 의하면 릴리아의 메모에 "감상주의"와 "반 낭만주의자," "추종자"와 "반역자"라는 극이 되는 성격의 글이 한 곳에 적혀있는 것은 헨리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한다(5). 릴리아에게 헨리는 일관성 있게 정의할 수 없는 다분히 상충되는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헨리의 직업이 스파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안광에 의하면, "정착해서 고정된 자아를 가지지 못한 자, 즉 이민자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18). 헨리의 직업이 스파이라는 설정은 미국 사회에서 그가 가지는 이질적인 면모를 좀 더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정진선은 스파이는 헨리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숨기게 하고 그에게 거짓의 삶을 살도록 요구한다고 말한다(9). 이와 비슷하게 박선주는 헨리가 스파이 일을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데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523). 헨리가 가지는 비가시적인 면모와 스파이라는 직업의 특성은 맞아 떨어지며 헨리는 이를 스파이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스파이는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어디 한곳에 소속되지 않으며 위장된 정체성의 가면을 쓰고 늘 염탐할 대상을 관찰해야 한다. 스파이가 대상을 염탐할 때 보이는 행동패턴처럼 헨리는 끊임없이 주류의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들 주위를 서성거리며 자신들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질적 정체성을 숨긴 채 미국적 정체성의 탈을 쓴다.

또한 스파이는 염탐의 대상에 따라 맞는 행동을 연출해야하기 때문에 수시로 타인의 가면을 쓰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 스파이는 헨리의 삶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요소이다. 실제로 헨리는 자신이 스파이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모습을 지녔다고 여긴다. “나는 늘 내가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고, 어쩌면 동시에 몇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다”(127). 헨리는 스파이가 되기 전에도 자신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도 더 나아가 동시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는 누가 되든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헨리는 자신이 남들보다 스파이하기에 꽤 적합한 요소를 지닌다고 생각했고 스파이라는 직업은 미국 사회에서 헨리에게 “완벽한 직업”(127)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헨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이 한 사람으로 느껴지게끔 일관적이지 않으며 그의 정체성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헨리가 자신이 처한 삶에 대한 불만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헨리는 소수인종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불안하게 여기며 주류에 속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짜 헨리의 삶은 그의 생각과는 완연이 달랐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의 상상일 뿐이었고 현실 속 헨리의 삶은 “자신만의 한 장소”(127) 안에 머무는 삶이었다. 그는 익숙한 곳을 벗어날 때 주춤거리게 되고 나서려고 해도 반 발짝씩만 걸어 나가는 소심함을 가졌다. 애초에 헨리는 능동적으로 스파이 일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를 지켜보고 다가온 호글랜드의 스파이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락한 것은 늘 다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며 소극적으로 살아온 헨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헨리는 스파이 일을 함으로써 드디어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우리 일을 통해 나의 존재를 승인 받았다. 마침내 이 문화에서 진정한 나의 자리를 발견한 셈이었기 때문이다”(127). 그가 지닌 비가시적인 모습과 다중의 정체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스파이였기 때문에, 헨리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스파이를 할 수 있게끔 해준 호글랜드에게 고마워한다. 헨리는 그의 이질적인 정체성과 그로 인해 소심한 성격을 갖게 된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이 스파이였다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한다. 하지만 스파이가 상대방을 속이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일이라는 도덕성의 문제에서 헨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존 강의 몰락과정에서 알 수 있듯, 헨리는 백인 중심의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들을 제거하는 청소부로 이용된다. 헨리는 자신의 동족인 존 강을 감시하고 제거하고자 의도를 가진 주류 세력의 음모에 하수인으로 가담했다. 헨리가 스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를 통해 주류 사회로 동화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했지만 주류에게 그는 단지 도구적 존재일 뿐 그들과는 같은 편에 설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부부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대면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먼저 릴리아이다. 그녀는 진실을 자신에게 털어놓지 않는 헨리의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도 애써 모른 척 헨리를 대했었다. 각자만의 서로 다른 비밀을 안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처럼 유지될 것 같던 그들의 연기는 릴리아가 내민 메모로 끝이 난다. 그러나 진실을 감추려는 헨리를 지켜보기만 하고 모른 척 해왔던 릴리아의 행동 역시 그와 다를 바 없는 거짓의 모습이다. 헨리가 스파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밝히지 않은 채 헨리의 거짓된 태도에 그저 체념해 버렸고 진실을 대화가 아닌 메모지에 비춘다는 것은 그녀 또한 헨리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소극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 사이에 진실을 향한 소통의 도구는 대화가 아닌 메모지였다. 메모지는 거짓된 그들 사이에 유일하게 진실을 비출 수 있는 것이며 부부 사이에 얼마나 진지한 대화가 없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로써 릴리아의 메모는 헨리와 릴리아 간의 소통 부재의 상징이자 헨리의 정체성에 대한 총평의 의미를 갖는다.

채근병에 의하면 헨리는 그가 겪고 있는 사회 속 소속감의 결여를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인물로, 릴리아의 메모는 “헨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과 같은 역할”(130)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채근병은 이 소설이 헨리의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점에 주목해, 메모를 헨리가 그 자신에게 정의하는 다중의 정체성의 자화상으로 본다(134). 헨리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스스로에게 묻지도 못하는 극한의 혼란 상태에 놓여있다. 릴리아의 메모는 헨리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새롭게 고민 해보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헨리는 릴리아의 메모를 읽고 나서 세 부를 복사하고 원본은 파기한다. 하나는 지갑 안에 나머지는 릴리아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관하고 마지막은 봉투에 넣어 자신에게 부친다. 이는 “복사본”(4)을 더 좋아한다는 헨리의 특이성은 그가 가진 삶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다. 원본은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진짜’를 상징한다. 원본이 복사본이 되고 파기되는 순간 그 원본이 가진 의미는 사라진다. 또한 복사본은 결코 원본이 가진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그것을 무수히 복사하더라도 의미 변화가 없다. 복사본을 더 좋아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헨리 ‘진짜의 모습’은 이미 그 스스로 파기해 버려서 이젠 어디에도 없으며 ‘가짜의 모습’인 가면을 쓴 자신의 모습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헨리는 자신을 “동화된 자”(160)라고 말한다. 그는 원본의 한국적 정체성을 일부 가진 그의 자아들을 자의적으로 파괴했고 그가 닮기를 원하는 주류의 미국적 정체성을 복사해 그의 안에 채워 넣었다. 이런 행위로 헨리는 그 자신도 어느 것이 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짜 자신의 모습인 것인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삶을 받아들인다. 한편 헨리가 사본 하나를 지갑 안에 넣는 이유는 혹여 헨리가 무슨 일을 겪을 경우 "개인의 별표 역할"(4)을 해 줄 것 같아서이다. 누구든지 메모의 내용을 보더라도 헨리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헨리 스스로도 메모에 적힌 내용이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을 뜻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헨리는 그의 스파이 대상이었던 존 강이 한국으로 쫓겨난 후 그를 배신한 자신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땀방울로 일궈놓은 숭고한 희생의 삶을 배신한 일이였다는 수치심을 느낀다. 결국 헨리는 죄책감으로 인해 스파이 일을 그만두고 아내 릴리아가 이민자 출신의 아이들에게 영어발음을 교정하는 수업의 도우미를 한다. 헨리가 릴리아의 언어치료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상징한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좀 더 떳떳하면서 자신만의 자아를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헨리의 의지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이전에 해본 적 있는 익숙함을 느끼는 수업 도우미 일을 선택하는 헨리의 모습에서 아직까지 불완전한 주체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헨리는 거짓된 가면이 필요한 스파이 일과는 다른 주체적인 삶을 원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동적인 헨리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못했다. 이는 헨리 개인의 탓도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 미주류 사회에 속한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소수민족 출신인 헨리의 의지만으로는 주류 사회로의 입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경화에 의하면 헨리가 릴리아의 수업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은 "동화의 복잡한 과정과 한계를 상징하며, 그의 완전한 정체성 회복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며 미국사회에서 소수 유색인종의 위치를 상징" 하는 것이다(12). 헨리 자신은 릴리아의 학교 직원들에게 수업 도구의 일부라고 비춰지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며 그 이상의 존재로 딛고 올라가는 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여긴다.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우리는 처음 30분 동안은 누가 누구이고,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파악한다. 나는 녹색 고무 두건을 쓰고 언어 괴물 역할을 한다. 나는 잘한다.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하지만, 릴리아가 미리 연습시킨 그날의 암호를 말할 줄 아이 앞에서는 움츠러든다. 오늘의 암호는 '냇물을 따라 부드럽게'나 우리가 이미 가르쳐 준 노래의 곡조를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말을 나에게 노래로 한다. 나를 죽이고, 나를 굴복시킨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어 한다. 언어를 웃음거리로 삼는 창백한 백인 여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엉터리로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나는 가면을 벗는다. 우리는 아이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준다. 어떤 아이들은 내 목소리가 내 입에 맞추어서 움직인다는 것, 진짜로 내 얼굴에서 나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놀라는 표정이다. (563-65)

> We do what we can. We spend the first half hour figuring out who is who and what they speak. I wear a green rubber hood and act in my role as the Speech Monster. I play it well. I gobble up kids but I cower when anyone repeats the day's secret phrase, which Lelia has them practice earlier. Today the phrase is Gently down the stream. It's hare for some of them to say, but it helps that they can remember the melody of the song we've already taught them, and so they singsong it to me, to slay me, subdue me. She wants them to know that there is nothing to fear, she wants to offer up a pale white woman horsing with the language to show them it's fine to mess it all up. I take off my mask and we both hug and kiss each one. Some wonder in their looks as they check again that my voice moves in time with my mouth, truly belongs to my face. (348-49)

릴리아의 수업에서 헨리는 수업 후반부에 초록색 가면을 쓰고 언어 괴물이 되어 등장한다. 아이들이 그날 배운 말을 기억해내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으면 헨리는 그 아이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 말에 의해 힘을 쓰지 못한 채 무력하게 "굴복" 당하며 끝내는 아이들이 뱉어낸 언어라는 무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놀이 규칙의 밑바탕에는 주류 사회의 기준에 맞는 영어를 해야 그들을 위협하는 언어 괴물의 힘이 약해진다는 메시지가 있다. 아이들은 주류 사회의 기준에 맞는 영어를 하지 못하면 언어 괴물에 의해 공격당하고 끝내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원어민"이 되지 못하면 공격당할 수 있고 결국은 생존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민자의 자녀인 학생들은 이 놀이를 통해 영어를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전에 스파이로 헨리가 주류 사회의 도구가 되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소수민족을 제거하는데 일조했던 것처럼, 헨리는 언어 괴물의 가면을 쓰고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의 아이들에게 겁을 준다. 주류는 끊임없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소수민족을 이용하고 헨리는 이런 미국의 사회적 구조를 벗어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릴리아는 아이들에게 언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어 한다. 놀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즐거움을 느끼는 연습과 어려운 말을 해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영어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영어를 우스꽝스레 여기는 창백한 백인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어를 어눌하게 하는 소수민족의 아이들에게 백인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선망의 대상이다. 릴리아는 주류 사회에 동화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을 이미 가진 백인으로, 영어를 장난스럽게 엉터리로 말함으로써 영어는 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 수업이 끝날 때 우리는 아이 하나하나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릴리아는 모든 아이에게 스티커를 나누어 준다. 그녀는 출석부를 보고 해 모양의 배지 안에 아이들 이름을 적는다. 그 녀는 모두 훌륭한 시민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름을 중얼 거리며 얼른 스티커에 적고, 나더러 교실에서 나가는 아이들 가슴에 달아 주게 한다. 말없는 얼굴들이 줄지어 있다. 나는 머릿속에 아이들 이름을 적는다. 그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아이들 이름을 부른다. 고저와 억양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그녀가 원주민의 아름다운 언어 여남은 가지를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 주는 그 어려운 이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564-65)

> At the end of the session we bid each kid goodbye. Lelia gives each one a sticker. She uses the class list to write their names inside the sunburst-shaped badge. Everybody, she says, has been a good citizen. She will say the name, quickly write on the sticker, and then have me press it ti each of their chests as they leave. It is a line of quiet face. I take them down in my head. Now, she calls out each one as best as she can, taking care of every last pitch and accent, and I hear her speaking a dozen lovely and native languages, calling all the difficult names of who we are. (349)

수업을 마치고 릴리아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시민”이였다고 말해준다. 소수민족 아이들에게 발음 교정 수업은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발음 교정 수업은 아이들이 가진 이질적인 속성들을 주류가 가진 속성으로 다시금 바꾸는 과정을 통과해내야만 주류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릴리아의 훌륭하다는 칭찬 속에 은밀히 감춰져 소수민족에게 주입하는 주류의 메시지는 소수민족의 고유성을 지니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이라는 일종의 경고이다.

언어 치료사인 백인 여성 릴리아는 수업에서 언어치료사로서 소수민족에게 그녀는 원어민의 기준이며 규범이 된다. 그녀의 발음은 어눌한 발음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해야하는 기준이다. 헨리를 처음 만나던 날 그녀는 자신에 대해 기수라고 말한다. “나는 깃발을 든 사람이거든요”(13). 깃발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닌 그 안에 사회적 상징을 담고 있는 표상으로 주류 백인들이 영어 원어민을 상징하는 깃발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든 기수임을 의미한다. 그들만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기수, 즉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잠재의식을 릴리아는 드러낸다. 미국 사회에서는 유색인종은 백인의 뒤를 따라야하는 수동적인 존재이며 그들은 기수가 될 수 없다는 말인 것이다. 송다영에 의하면 "릴리아의 존재는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로의 동화를 촉진하는 매개체의 구실을 한다. 수업 내 릴리아는 시민의 자격을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국가 기관의 권력을 수행하는 대리인이기도 하다"(48-9). 주류에게 미국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주류 사회에 소속된 자가되어야 하며 소수민족 출신은 이러한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창래는 아직도 주류가 그들의 사회로 소수민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에게는 냉소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알린다.

릴리아가 수업 후 아이들에게 배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소수민족 아이들이 주류 사회의 기준이 되는 발음을 구사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에게는 주는 배지는 통과의례를 치르는 자들만이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입장권을 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헨리는 배지를 그의 손으로 아이들에게 달아준다. 어릴 적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과 놀림 속에 교정 수업을 들어야만 했던 헨리, 그로 인한 상처로 평생 영어에 대한 집착,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되었던 그가 릴리아의 수업에 도우미로 참여하고 이민자의 아이들에게 직접 배지를 달아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헨리도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 내 통용되는 표준영어를 반드시 구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수긍함을 뜻한다.

릴리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최선을 다해서 부른다. "나는 그녀가 원주민의 아름다운 언어 여남은 가지를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 주는 그 어려운 이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349). 주류 사회에 속한 릴리아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류 사회 또한 소수민족들의 존재를 인식한다. 조수현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동안 주류 사회에서 부인되어 왔던 타자의 인식이 원어민의 문화와 언어에 틈입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104). 서로 정체성의 다름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회 내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이다.

헨리는 주류와 동일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가 가진 한국적 정체성으로 인해 영어를 완벽히 할 수 없었다. 작품의 제목인 *Native Speaker*는 영어를 미국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하는 것만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온전한 미국인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를 담는 말이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쓰는 모든 사람을 원어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외모나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 이들을 영어 원어민으로 인식하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않고 또한 소수민족 또한 자신들이 가진 이질성 때문에 스스로도 영어 원어민이라는 사실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native speaker'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원어민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어 원어민이라 말한다. 우리에게 원어민이라 함은 백인의 외모를 가진 미국인을 상상하게끔 하는 말이다. 김선영은 이런 고정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헨리는 그가 말하는 영어로 판단해 본다면 원어민임은 맞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어민이 아니다. 일단, 헨리의 외모가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외모로 인해 부모가 백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부색과 얼굴로 이미 동양인은 예전부터 인종화(racialized) 되어있음을 의미하고 미국인이라 함은 백인뿐이라는 "미국인=백인"이라는 고정관념이 서양인 뿐 아니라 동양인 스스로에게도 내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28)

이는 작품 속에 가면을 벗은 헨리의 얼굴을 본 아이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내 목소리가 내 입에 맞추어서 움직인다는 것, 진짜로 내 얼굴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놀라는 표정이다"(349). 헨리가 언어 괴물의 가면을 벗자 아이들이 놀란다.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아직 인지능력이 덜 완성된 아이로서 헨리를 진짜 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놀람의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가면 속의 헨리가 원어민이라고 느껴질 만큼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는데 가면 밖의 그의 얼굴은 자신들의 상상과는 다른 동양인의 얼굴이었다는 이유에 대한 놀람의 표현일 수 있다. 소수민족 출신의 아이들 또한 영어를 문제없이 구사하는 원어민은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헨리는 자신의 인종적 색채를 가리는 가면을 쓴 상태에서만 원어민으로 비춰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헨리는 늘 원어민이 되고 싶어 했다. 주류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의 동화욕구는 헨리로 하여금 그들의 소유 언어인 영어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이질적인 외모를 극복하고 미국인의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가 영어라고 여겼다. 그러나 원어민이란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원어민은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자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자신들의 모국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원어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백인우월주의를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지나치게 추앙하는 사람들로 인해 원어민의 의미가 곧 백인 미국인이란 이미지가 굳어냈고 이런 개념을 헨리는 어떠한 필터 없이 수용한 것이다.

헨리는 릴리아의 수업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는 소수민족 아이들을 보며 그가 가졌던 원어민의 좁고 한정된 의미인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든 모국의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재인식하게 된다. 그는 완벽한 발음을 구사하는 영어를 하는 자들만이 원어민이라고 여기고 이민자들이 쓰는 자기식대로 하는 어눌한 영어를 비하했었다. 이제 헨리는 원어민의 범주를 크게 인식해 받아들이면서 소수민족들의 다양하고 어눌한 언어를 긍정한다.

이영애는 원어민의 의미에 관해 이전과는 다르게 넓게 수용하는 헨리의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의 영어만을 몰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언어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서 "자기중심적인 편견과 자기혐오"에서 탈피한 상태라고 말한다(210). 헨리가 가진 언어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이 해소되고 나니 자신의 이질적인 정체성도 새롭게 느껴진다. 영어는 이제 그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그가 지켜 본 수업의 현장에서는 누가 원어민인가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영어를 잘하지 못한 이민자의 아이들도 그들의 나라에서는 원어민이 되는 것이다. 헨리는 원어민이란 말에 담긴 의미를 편협하게 받아들였고 그럴수록 자신이 가진 이질성이 백인들의 것보다 하위의 것으로 비하되었고 따라서 백인처럼 되려고 했었다. 이제 헨리는 자신의 이질성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재인식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론

지금까지 이창래의『원어민』에 등장하는 세 남성인물인 헨리의 아버지와 존 강 그리고 헨리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이민 1세대로서 아메리칸 드림에 성공한 인물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범적 소수인종' 신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소외된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늘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주눅 든 모습이었고 그들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무일푼에 가깝게 미국에 건너와 가게를 여러 군데나 운영할 정도로 성공시킨 신화적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가 미국인들에게 환영받는다고 여기며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성공을 통해 미국 백인 중산층의 세계로 틈입하려했다. 아버지의 꿈은 실현되었지만 백인 중산층을 흉내내는 삶에 편안함은 없었다.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늘 긴장하며 주류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줘야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보상하기 위해 가부장적인 모습을 고수했고 그 결과 아들 헨리와 갈등을 빚었다. 헨리는 아버지를 가족에게는 절대 권력을 가진 권위적인 가부장이지만, 가정 밖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낸다.

헨리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 존 강은 영어에 능숙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주목받는 정치인이다. 존 강은 헨리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한국계 미국인 남성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나 헨리는 그와 가까워질수록 그에게서 아버지와 비슷한 전형적인 한국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헨리는 그의 몰락과정을 지켜보며 자신 혹은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 사회에서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은 동일시의 감정을 겪는다. 한국계 미국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존 강이 불미스런 일을 겪고 추방에까지 이르자 헨리는 미국 사회의 소수민족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분위기를 절감한다.

주인공 헨리는 이민자가정 출신의 이민2세인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가 가진 이질감으로 인해 주류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과 차별로 인한 막연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헨리는 그가 가진 이질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주류로부터 타자로 인식되었고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원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가진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려고 할수록 그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헨리에게 주류 사회 진입에 장애처럼 느껴졌다.

이민 3세대인 아들 밋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민 1세대와도 문제없이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한때나마 헨리가 밋을 통해 가졌던 혼성적 존재에 대한 기대는 밋이 백인 아이들에 깔려 죽음으로써 무참히 사라진다. 존 강의 몰락과 밋의 질식사를 겪으면서 헨리는 미국사회의 한계와 더불어 소수인종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절감한다. 그리고 소설 후반부에 이르러 헨리는 자신의 이중의 정체성을 더 넓은 시각으로 재인식하고 릴리아의 언어 교정수업에 도우미로 참여하면서 원어민에 대한 정의를 확장한다.

결론적으로 이창래의 『원어민』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유리벽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작동하는 미국 사회의 배타주의,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꼬집고, 한국계 미국 남성의 복잡한 정체성을 재조명한다. 한국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급속도로 혼종적인 정체성들이 생겨나고 있다. 헨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과정은 모국을 떠나 타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하는 상황에 놓인 혼종적인 존재들이 다른 민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 창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용문헌

강창형.「이창래의 『원어민』(*Native Speaker*)에 나타난 초국가주의적 자아정체성」.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2011.

김도원.「다문화시대의 소수민족정체성 연구: 이창래의『네이티브 스피커』」.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07.

김선영.「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창조적 이중의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1.

구은숙.「문화/인간 엿보기:『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생 스파이로서의 작가」.『현대영미소설』7.1 (2000): 47-64.

류보선.「다언어공동체와 연인들의 공동체: 한국계 미국 작가 소설 속의 한국인의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40 (2009): 129-57.

박선주.「번역자와 스파이: 창래 리의 『원어민』에 나타난 초국가적 아시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형성」.『영어영문학 연구』53.3 (2006): 519-42.

안광.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이창래의『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다문화모티프를 중심으로」.『한국문예창작』9.3 (2010): 139-66.

이경화.「*Native Speaker* and *Invisible Man*: 두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추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008.

이선주.「아시아계 이민의 확산과 미국 주도문화세력의 경계 짓기 고찰」. 『새한영어영문학』 50.3 (2008): 59-83.

이영애.「『원어민』에 나타난 미국 다문화주의 비판」.『영어영문 연구』51.2 (2009): 179-214.

이재환.「『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에 나타난 공간화 된 소속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0.

이혜경.「이창래의 *Native Speaker*에 나타난 정체성 위기와 인간관계 회복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6.

이창래.『영원한 이방인』. 정영목 옮김. 서울: 나무와 숲, 2003.

윤성호.『언더독의 글쓰기: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지형도』.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송다영.「포스트콜로니얼 문학에 나타난 혼종적 주체의 저항담론: 『네이티브 스피커』와 『하얀 이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수현.「이창래의『영원한 이방인』에 나타난 탈 식민주의적 대응 전략」.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8.

한만수.「인터뷰: 소설『네이티브 스피커』 美(미)평단 찬사 한 몸에. 작가 李昌來(이창래)씨」. 『경향신문』 1995. 9. 13: 12.

하선우.「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혼란 탐구: 이창래의『네이티브 스피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6.

한혜숙.「이창래의 *Native Speaker*에 나타난 Korea-American의 정체성 형성 과정」.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9.

채근병.「재미한인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강용흘, 김은국, 이창래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14.

Lee, Chang-rae.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Books, 1995.

Collection @ chosun